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교황청 “후천적 성 정체성, 인간본성 위배”

교황청이 현대적인 ‘성 정체성 개념’ 이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교육 지침을 발표해 성소수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은 10일 공개한 ‘남성과 여성, 하느님이 그들을 창조했다’ 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성을 후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현대의 ‘성 정체성’ 개념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태생적인 차이를 부정하고, 가족의 가치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가톨릭교육성은 이 문서에서 또한 “가변적인 성적 정체성은 자유라는 혼란스러운 개념에만 근거하고 있다” 며 “성(性)은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부여받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사전 예고 없이 발표된 이번 문서에는 성 정체성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대화를 촉구하고, 누구도 놀림이나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존중하도록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미국의 성소수자 가톨릭 신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인 ‘뉴 웨이즈 미니스트리’ (New Ways Ministry)는 이 문서가 성전환자뿐만 아니라 게이와 레즈비언, 양성애자 모두를 억압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창립20주년 감사예배 살롬장애인선교회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6월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류재덕 목사(백리연합감리교회 담임)는 ‘겨자씨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3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무시당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극히 작은 ‘겨자씨’ 도 그 속에 사랑과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 며 “하나님께서 살롬장애인선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전세계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8일 위티어 네로우스 레크레이션 파크 (Whittier Narrows Recreation Area)에서 ‘제20회 장애인 가족 초청 야유회’ 를 열었다.

▶ 후원 문의: (323) 731-7724



네 마음을 지키라(잠4:23)

우리 사람은 항상 어떤 ‘생각’ 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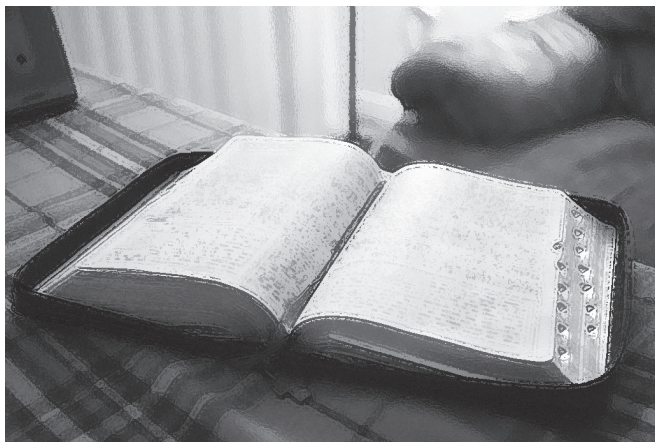
성경은 다른 것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물질을 지킨다든가 명예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갖아야할 고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영의 생각’ 을 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6~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영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의 생각’ 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어려워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 순서를 놓으면 미리 겁을 먹고 “제발 저에게는 기도를 시키지 마세요! 기도를 시키면 다음부터는 안 나올 꺼예요!” 그러면서 두 손을 흔듭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 봐도 멋있게 기도하라, 장황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비록 서툴고 뜻이 되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듯이 우리의 간구가 서툴고 비록 미사여구가 아닐 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가 갖아야할 고귀한 생각은 ‘말씀의 생각’ 입니다.

‘존 번연’ 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요구하

시는지 주의 뜻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있어야 합니다. 머리를 비워둔 채 있다면 어느새 마귀가 시험을 하고 허망한 생각을 집어 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세


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절 말씀에 “복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이라는 단어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복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15~17절 말씀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박기완 목사-



100% HAND WASH

TRUCK / RV / CAR

왁스 · 스팀 세차 · 인테리어 청소

종목
TRUCK, RV, BUS, OVERSIZE, Fork LIFT, AUTO CARRIER, BOAT, ETC

서비스
WASH, STEAM, POLISH, WAX, INTERIOR DETAIL

특별 서비스
D.O.T. 서비스, PARKING SPOT(파킹장 임대)
AUTO DEALER(자동차 판매상) 문의환영
TRUCKING(운송 회사) 문의환영



KING TRUCK WASH

OPEN HOUR : MON-SAT 6am - 6pm

562.945.4826

mwleela@hotmail.com
www.kingtruckwash.com



12500 E. Slauson Ave., G-2,
Santa Fe Springs, CA 90670